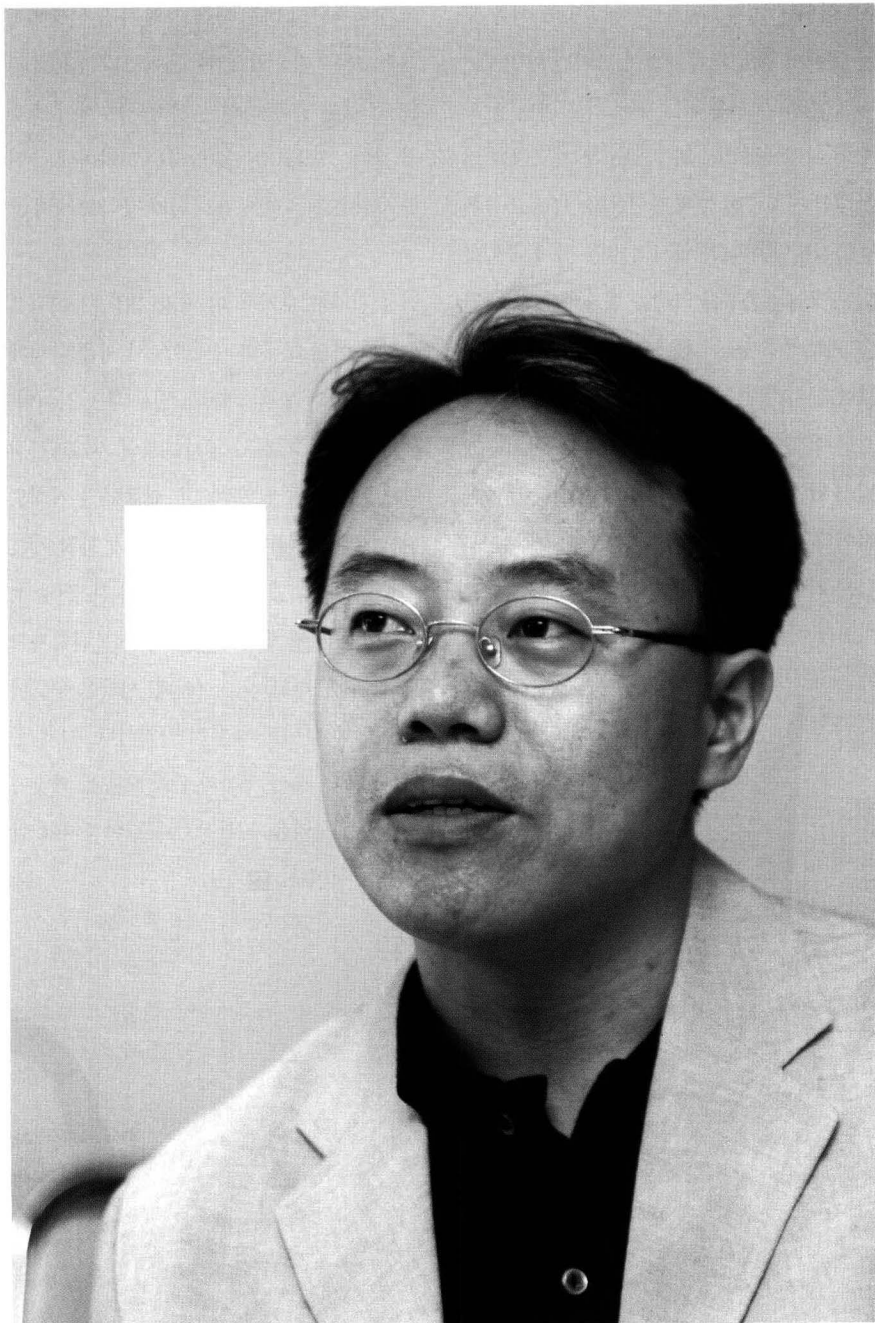


《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저자 홍성태 대담

Seoul

서울의 '오래된 미래' 찾아 나선

서울출생 사회학자의 '투쟁'



서울엔 없는 게 없다. 게다가 넘쳐나기까지 한다. 하지만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넘쳐날 뿐만 아니라, 최근의 대중교통 대란처럼 정작 있어야 하는 것조차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것들을 위해 존재하기도 한다. 《서울에서 서울을 발견한다》의 저자 홍성태 씨는 이런 서울을 '난민의 도시'라고 규정한다. 사람보다 차가 우선이고 가로수보다 전봇대가 우선인 도시, 돈없으면 놀러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애도 못 낳고 병원도 못 가고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면 그나마 다행인 도시가 바로 서울인 것이다.

홍씨는 2000년 12월 부터 2002년 11월까지 월간<참여사회>에 '홍성태의 서울만 보기'라는 칼럼을 연재하며 서울의 거리와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홍씨는 그 끔찍한 서울에서 여전히 살고 있고 다음 달에는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 서울에 사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사회학자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삶과 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그에게 한 아이의 출생은 더 절실한 동기가 될 것이다.

지난 7월 9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홍씨를 만나 그가 '찾은' 서울에 대해 들어보았다. 강하고 직설적인 어조에서 '서울'을 바로 세우려는 그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 글 쓰고 사진 찍기 위해 서울 곳곳을 두 번 이상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보는 ‘싸움’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셨는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돌아다니는 것 자체는 그다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가장 즐기는 ‘취미’이기도 하니깐요. 문제는 내가 돌아다니는 공간 자체였습니다. 걸어다니기 어려운 보도, 난잡하고 시끄러운 도시 풍경, 자동차가 주인인 거리 등 느긋하게 도시를 즐기며 발 닿는 대로 걷는 것 자체가 서울에서는 아주 어려운 일이고 ‘싸움’ 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서울을 엉망으로 만든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원인에 대해 깊은 연민과 분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싸움’을 벌인 결과물이 내 ‘만보기’입니다.

// 지금이야 서울에 대해 쓴 책이 두 권이나 되지만 개인적으로 서울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학생이었던 1970년대 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서울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중학교 때는 소공동의 백화점들에서 휘황한 ‘소비문화’를 구경하고, 명동성당에서 그윽한 분위기를 나름대로 즐기기 위해 도심을 찾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시내를 관통하는 버스를 타고 학교를 오갔지요. 그 덕분에 70년대 말부터 활발히 전개된 도심재개발의 현장을 생생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무교동이나 다동 일대, 장교동 일대의 재개발이 그런 곳입니다. 그 무렵부터 도시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디는 빠르게 변하는데, 어디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변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불평등’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을 중심으로 도시의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두환이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앞두고 대대적인 철거와 재개발을 단행했지요. 박정희가 1960년대부터 써먹었던 방법을 고스란히 답습했던 겁니다. 나 또한 청량리의 도시빈민 출신으로서 철거와 천막생활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욱 이런 식의 재개발에 비판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사과정에 있던 1990년대 중반에 해외지역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미국, 호주, 일본, 중국 등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외국의 도시들, 예컨대 워싱턴이나 시드니 같은 서구도시들과 도쿄나 베이징 같은 동양도시들의 차이, 그리고 이런 도시들과 서울의 차이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언제나 깊은 연민과 분노였습니다. 90년대 말에 문화연대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어느 분야에서 활동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다가 공간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의 공간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게 되었지요.

// 사회학자에게 그리고 시민운동가에게 ‘도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서울이 텍스트로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도시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의 도시화율은 80퍼센트를 넘고, 2010년에는 90퍼센트를 넘게 됩니다. ‘삶의 질’에 대해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국 ‘도시에서의 삶의 질’입니다. 아름답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리하고 즐거운 도시를 만들지 못한다면, ‘삶의 질’은 언제나지고 결코 높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은 이런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서울은 이 나라의 도시들이 안고

있는 난개발과 파괴와 불평등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서울은 이 나라의 모든 도시들의 가장 중요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제가 ‘서울화’라고 부르는 변화가 열렬히 추구되었습니다. 서울이 이처럼 큰 힘을 갖고 있는 만큼 서울을 바꾸는 것은 전국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하나의 도시가 변화되는 과정에는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언뜻 행정가와 건축가가 떠오르는데요. 각각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현재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더 복잡합니다. 크게 보아서 정치(의회, 정부), 기업, 전문가(도시설계자, 건축가)의 세 주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군주’이라는 주체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시민단체도 아직까지는 도시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바른 도시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존중할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정치와 기업이 도시정치를 사실상 좌우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통한 최대이윤의 논리’가 도시를 망치고 있다는 뜻이지요. 시민의 힘으로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전문가의 각성과 실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도시 관련 전문가들은 흔히 무식한 정치와 기업을 욕하곤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전문적 하수인’의 처지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들이 크게 늘어나야 합니다.

// 이들 전문가들로부터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을 받았을 법한데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주장을 도피처로 삼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직접적인 파괴의 주체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싸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출판저널〉이 《서울에서 서울을 발견하다》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명박 시장 체제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울의 급격한 변화 때문입니다. 이미 책에서도 밝히고 계시지만 청계천 복원사업, 서울광장, 서울시내버스 개혁 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박 시장에 대해 '신개발주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장제일주의의 추구하고 반민주적 행정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구개발주의'와 같습니다. 환경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지요. 이명박 시장은 개발독재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가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감성과 이론으로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서울의 대재앙'입니다. 이런 문제는 청계천복원에서 이미 잘 드러났습니다. 마치 '구개발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청계천복원사업은 사실 청계천파괴사업입니다. 그것은 청계천의 역사와 환경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괴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박정희의 '구개발주의'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서울광장'에서 똑같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이 이곳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는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서울시의회가 이곳에서 대규모 정치집회를 하도록 허용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나라당 시의회와 한나라당 시장이 서로 도와가며 서울광장을 이용하고 서울시를 망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가장 크게 터진 것이 바로 '교통대란'입니다. 7월 1일마다 '정치 쏘'를 해서 자신을 선전하고자 하는 이명박 시장의 빼돌려진 욕심 때문에 1,000만 시민이 크나큰 고통에 빠지게 된 것이 이번의 '교통대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을 단순한 사유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시장도 그런 인물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집중도시'가 아니라 '극단적인 과밀도시'입니다. 세계에 1,000만 명 도시는 많지만, 서울처럼 전 인구의 1/4이 모여 사는 도시는 서울밖에 없습니다. 세계에 2,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수도권은 많지만, 우리 수도권처럼 전 인구의 1/2 이상이 모여 사는 수도권은 또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서울집중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능분산, 집중방지 등의 정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행정수도 건설 같은 정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논란은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불을 지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나라당은 신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입니다. 이를테면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부정하고 나서고 있는 셈이지요. 신수도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책임을 묻고,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특별법을 폐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로 분산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신행정수도를 제대로 건설하기 위한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분산에 따른 서울의 복원계획도 논의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역시 토건국가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건국가란 토건업체와 정치권이 유착해서 환경파괴적인 대규모 토건사업을 계속 벌이는 국가를 뜻합니다. 이것은 특히 일본의 반환경적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 고안된 개념입니다.

다. 막대한 불법자금을 제공받고, 또한 쉽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토건국가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면에서 엄청난 규모의 자연파괴가 일어나고, 이런 파괴에 엄청난 액수의 세금이 사용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새만금사업'을 들 수 있지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도 새만금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형수도건설 사업도 엄청난 규모의 토건사업이라는 점에서 토건국가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패 문제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강한 개혁성을 보이고 있어, 박정화-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개발독재의 토건국가와 크게 다르지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가 토건국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

니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이 사회의 구현체이니만큼, 도시공간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사회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 명의 시민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도시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결합하여 '전문가'를 하수인으로 부려서 만든 영터리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도시는 정경유착과 반민주적 정치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시민의 참여만이 이 영터리 도시를 사람이 살 수 있는, 나아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를 통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토론과 시정만이 우리의 도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관련된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힘을 모으는 길이 있습니다. 둘째, 시정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그 의견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의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시의회는 한나라당 시의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섭단체를 꾸리고 있는 당도 한나라당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그 본연의 임무인 시정감시와 비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의원들을 잘 뽑아야 하고, 또한 시 고위간부의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의회 권한강화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민이 서울시의회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선생님께서 그리고 있는 50년 후 서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고치고 또 만들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50년 뒤의 서울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석유위기가 20년쯤 뒤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크고 높은 화려한 건물들은 50년 뒤에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겠지만,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동시에 분산이 이루어져서 서울 곳곳에서 공동화에 따른 슬럼화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지금 같은 파괴적 개발이 계속되는 한 50년 뒤의 서울은 결국 끔찍한 '디스토피아 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생태적 전환'을 지금부터 철저히 추구해야 합니다. 베를린을 그 모범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곳곳에 숲이 우거진 숲속의 도시, 전기와 물 같은 필수적 자연재를 자급하는 도시, 공동체가 살아 있는 도시, 나아가 식량도 상당 정도로 자급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전통적 가옥이나 도시의 모습이 여기저기서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우리 자연의 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생태위기가 가속화될수록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만큼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던 옛 숲이 더욱더 넓게 되살아나겠지요. 우리의 미래는 궁극적으로 '오래된 미래' 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의 파괴적 개발을 깊이 반성하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글**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김대식(객원기자)

